강하늘 · 한효주 · 이광수 · 권상우, '해적: 도깨비 깃발' 확정

한국 유일 사극 액션 '해적'의 두 번째 이야기

상상력 자극하는 시원한 해양 액션 볼거리

지난 2014년 여름 개봉해 866만 관객을 동원하며 전국을 시원하게 사로잡은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 보다 신선한 캐스팅 조합, 한층 강화된 볼거리와 어드벤처로 무장한 새로운 이야기 '해적: 도깨비 깃발'로 돌아온다.

오는 7월 중 크랭크인하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조선의 건국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려 왕실의 마지막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바다로 모여든 이들의 짜릿하고 통쾌한 이야기를 그린 코믹 액션 어드벤처 영화다.

신선한 발상의 스토리와 매력 넘치는 캐릭터 군단,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볼거리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한국 유일무이의 사극 액션 어드벤처 '해적'의 두 번째 이야기 '해적: 도깨비 깃발'이 젊고 새로워진 막강 캐스팅을 완료하고 새롭게 출항한다.

강하늘은 자칭 고려 제일검이지만 예기치 않게 해적선에 눌러앉게 된 의적단 두목 우무치 역을 맡아 한층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매력을 뿜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동주' '청년경찰' '기억의 밤' 등 드라마, 코미디, 스릴러 장르를 오가며 탄탄한 연기력을 입증한 데 이어 최근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 명실상부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천하에 명성이 자자한 해적 단주 해랑 역은 '광해, 왕이 된 남자' '감시자들' '뷰티 인사이드' 등으로 호평 받은 데 이어 미국 드라마 '트레드스톤'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배우 한효주가 맡는다.

그는 캐릭터 변신은 물론 고난도 액션을 직접 소화하며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영화 '탐정: 리턴즈' '나의 특별한 형제' 등을 통해 친근한 매력과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배우 이광수는 개인 플레이가 특기인 해적단 막이 역을 맡아 능청스러운 연기로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다. 여기에 숨겨진 보물을 둘러싸고 해적단과 대적하는 부흥수 역은 '히트맨' '신의 한 수?귀수편' 등을 통해 장르 불문 인상 깊은 활약으로 흥행을 이끌어온 권상우가 맡아 극에 긴장감을 더할 예정이다.

보물을 찾아 나선 해적단에 합류하게 되는 당돌한 매력의 소녀 역은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여우각시별' 등을 통해 풋풋한 매력으로 주목받은 채수빈이 맡아 신선한 궁금증을 더한다.

백발백중 활 솜씨를 자랑하는 해적단의 명궁 한궁 역은 K-Pop 대표 그룹 엑소(EXO)의 세훈이 맡아 본격 스크린 도전에 나선다.

또한 우무치의 오른팔이자 의적단 부두목 강섭 역은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강렬함과 코믹함을 오가며 다채로운 캐릭터를 소화해온 배우 김성오가 맡았으며, 해랑을 따르는 해적 소단주 아귀 역은 '범죄도시' '1987' 등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박지환이 맡아 든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적: 도깨비 깃발'은 드라마 '추노'와 영화 '7급 공무원', 그리고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을 탄생시킨 천성일 작가가 각본을 집필하고, '쩨쩨한 로맨스' '탐정: 더 비기닝'으로 감각 있는 코미디 연출력과 흥행성을 입증한 김정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기대감을 배가시킨다.

조선의 바다를 배경으로 주인 없는 보물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전개, 매력 넘치는 캐릭터 군단이 선사할 호쾌한 웃음, 여기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원한 해양 액션의 볼거리까지 더해 '해적' 시리즈의 본격 시작을 알릴 '해적: 도깨비 깃발'은 오는 7월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동상이몽2' 3주년 "모든 건 시청자 덕분"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이 3주년을 맞아 출연진들의 축하와 감사 인사를 담은 스페셜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주요 포털 사이트 및 SBS 공식 SNS 채널에는 '동상이몽2 3주년! 출연진들의 축하 메시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너는 내 운명'의 3MC 김구라, 서장훈, 김숙 그리고 박성광과 정찬성이 등장해 방송 3주년을 축하했다.

먼저 최근 '너는 내 운명'에 합류한 박성광과 정찬성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해피 스마일 박성광은 발랄한 모습을 보여줬고, 아내와 티격태격하며 '찐현실' 부부 케미스트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정찬성은 공개된 영상에서도 머리를 만져주는 아내에게 괜스레 투덜거리며 장난을 쳐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등장한 김숙은 역대 '운명부부'와 시청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훈훈함을 안겼다.

서장훈은 "모든 건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이라면서 "앞으로도 재밌고 건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3주년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구라 역시 시청자와 출연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고 "삶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스타분들이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예비 운명부부를 향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한편 '너는 내 운명'은 3주년을 기념해 22일부터 5주간 매주 월요일 밤 10시 20분 역대 부부들이 함께하는 '홈커밍' 특집을 선보인다.

이번 특집에는 소이현 인교진 부부, 이윤지 정한울 부부, 윤상현 메이비 부부, 장신영 강경준 부부가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놈이 그놈이다' 황정음 "캐릭터에 큰 매력" 소감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극본 이은여/ 연출 최윤석 이호) 측은 18일 극 중 서현주 역을 맡은 황정음의 소감을 전했다.

'그놈이 그놈이다'는 세 번에 걸친 전생의 '그놈' 때문에 비혼주의자가 되어버린 철벽녀의 비혼 사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극 중 황정음은 능력 있는 웹툰 기획팀장이자 비혼 주의자 서현주로 분한다.

서현주는 매사에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똑 부러지는 성격에,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도 비혼을 당당히 외치는 솔직 당당한 캐릭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서현주 캐릭터에 큰 매력을 느꼈다는 황정음은 "현주가 비혼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 속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선택하게 됐다"라면서 출연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감독님, 배우들과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공감과 사랑 부탁드린다"라고 작품에 대한 큰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그놈이 그놈이다'는 오는 7월6일 오후 9시30분 처음 방송된다.

류시원, '영혼수선공' 출연 소감 "오랜만의 복귀…설레는 마음"

류시원은 18일 방송되는 KBS 2TV 수목드라마 '영혼수선공'(극본 이향희/ 연출 유현기)에 특별출연한다. 류시원은 극 중 중령으로 등장하여 이시준(신하균 분)과 만나게 된다.

'영혼수선공'은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인 아닌 치유하는 것이라고 믿는 정신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마음처방극이다. 류시원의 출연에 대해 '영혼수선공' 측은 18일 "감독님이 류시원씨와 역할에 대해 먼저 논의했고, 정해용 제작사 대표님과는 드라마 '웨딩'에서 감독과 연기자로 호흡을 맞췄던 오랜 인연으로 우정 출연이 성사되었다"라며 "무엇보다 류시원씨가 '영혼수선공'의 팬임을 자청하며 출연료도 받지않고 출연에 흔쾌히 응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류시원은 소속사 알스컴퍼니 측을 통해 "정말 오랜만에 드라마 '영혼수선공'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되어 기쁘다"라며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만난다는 마음에 설렌다"라고 복귀 심정을 건넸다.

이어 "데뷔 후 우정 출연은 처음인데, 평소 유현기 감독님 작품의 팬으로서 우연히 사석에서 만나 출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좋은 작품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개인적으로도 '영혼수선공' 출연으로 특별한 치유를 받은 것 같다. 짧았지만 촬영 현장에서 함께한 배우, 제작진 그리고 감독님과 작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컴백' 이진혁, 30일 신곡 '난장판' 발표…티저 공개

화려한 헤어 컬러 파격적인 변신…기대 증폭

이진혁이 새 미니앨범 '스플래시!'(Splash!) 롤 포토를 공개했다.

18일 이진혁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새 미니앨범 '스플래시!'의 롤 포토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다양한 모습을 한 이진혁이 포착, 그중 낙서로 가득한 가운을 입은 과학자 이진혁의 모습만 또렷하게 담겨 다른 캐릭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히 이날 롤 포토를 통해 새 미니앨범 '스플래시!'의 타이틀곡 '난장판'(Bedlam)이 공개, 무대 위 악동 이진혁이 이번 앨범을 통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를 증폭시켰다.

지난 16일 컴백 스케줄러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이진혁은 17일 공개된 솔로 포토를 통해 화려한 헤어 컬러로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진혁은 화려한 파티를 연상시켰던 솔로 포토와 상반된 이미지의 롤 포토로 반전을 선사한다.

이진혁의 미니앨범 '스플래시!'는 오는 30일 발매된다.

김수찬, 7월4일 신곡 '엉덩이'로 컴백…방시혁 프로듀싱

김수찬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김수찬이 오는 7월4일 신곡 '엉덩이'로 컴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신곡 '엉덩이'는 방시혁 프로듀서가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한 곡으로 올여름을 대표하는 새로운 섬머송 탄생을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수찬은 지난 2019년 디지털 싱글 '사랑의 해결사' 이후 1년 반 만에 내놓는 신곡으로,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첫 신곡으로 컴백한다. 이번 신곡 '엉덩이'가 포함된 미니앨범은 '수찬노래방'이라는 콘셉트로 이뤄졌다. 코미디 같은 가사로 방송계에 사랑받고 있는 '소개팅 눈물팅', 중독성 짙은 가사와 리듬으로 역주행 중인 '사랑의 해결사' 등 그동안 발표했던 곡들도 함께 수록했다.

타이틀곡 '엉덩이'는 지난 2003년 바나나걸 프로젝트의 데뷔 곡이자 국내 최고 작곡가 방시혁이 쓴 '엉덩이'를 리메이크한 곡이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을 기반으로 한 사운드에 김수찬의 흥을 유발하는 찰진 트로트를 가미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댄스트로트 곡이 탄생했다. 발매 당시 큰 인기를 얻은 원곡 '엉덩이'를 방시혁이 직접 프로듀싱, 어떤 곡으로 재탄생시킬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